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준비상황과 현안을 점검하는 제6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프로젝트 리뷰가 1일 평창 컨벤션 플라호텔에서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과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태명기자

설계변경 논란 제쳐 두고... 올림픽플라자 착공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장 등을 포함한 올림픽플라자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개·폐회식장 기본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착공을 늦출 경우 적기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단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 시공사(주)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 9월 조달청 심의를 받은 올림픽플라자 기본설계안을 기반으로 지난달 30일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에 착수했다. 우선 시공분은 본공사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토목공사나 공사 준비사항을 시공

**“더 늦추면 적기 완공 못 해”
개·폐회식장 기본설계안으로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

하는 것이다. 대림산업 측은 올림픽플라자 시공부지인 24만4,200㎡에 대한 표토 제거작업과 공사구역 전면에 걸친 펜스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주거지역과 이전하기 전인 도암중 부지 등은 당분간 제외할 예정이다. 조직위와 대림산업 측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조감도.

촉발된 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에 대해 ‘아직 아무런 통보나 설계변경안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는 2017년 9월 말까지로 예정된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심의받은 사각형

구조의 개·폐회식장 기본설계에 맞춰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소 1~2주일 후부터는 땅이 열기 시작해 표토 제거작업이나 공사계획고를 맞추기 위한 절토·성토작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는 없는 상태다. 대림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개·폐회식장 등 건축공사와 시설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평창=김영석기자kim711125@

2면에 계속

올림픽플라자 착공 - 1면에서 계속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설계변경과 관련, 아직 기존안으로 갈지, 다른 구조로 변경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절대공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땅이 열고 난 후 절토와 성토작업을 벌일 경우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량공사를 벌여야 하고, 해빙기에 침하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시공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본공사에서 절야 작업을 벌인다 해도 시간은 빠듯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원주~여주 간 단선철도 건설 추진 ... 사업비 5,001억원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철도망’ 구축사업에 따라 원주~여주 간 철도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원주~여주 간, 월곡~관교 간 철도망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동서철도망은 인천 송도역에서 월곡~관교~성남~여주~원주~강릉 등으로 연결될 예정으로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50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주~여주 간은 총연장 20.9km로 단선전철로 구축되며 총 사업비는 5,001억원 규모다. 하위윤기자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비 75억 삭감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

내년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해 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일 동계올림픽본부의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예산 135억7,900만원 중 필수시설 건립비인 75억원을 삭감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개·폐회식장 용지보상비 60억6,600만원과 보상여비 1,300만원, 필수시설건립비 7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국비 150억원도 서 있는 상태다.

정재웅(새정치·춘천) 의원은 “정부와 동계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장과 관련한 재정부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가 상당부분 예산을 떠안은 만큼 개·폐회식장의 사후 활용을 고려해 달라는 도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G-2년 기념 문화행사 예산도 대폭 깎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도총무행정관실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G-2사업비 1억5,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사업비 4억5,000만원 등 6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자원봉사



◇1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소관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일(새누리·철원·왼쪽 두 번째)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G-2행사 등 올림픽 예산 깎여 사후활용 고려한 설계 반영 강조 강원FC 활성화 예산 20억 삭감 오색케이블카 국비 건의안 채택

관련 6개 사업비 2억200만원도 없었다.

함종국 기획행정위원장은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G-2 관련 사업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계올림픽 관련 자원봉사 각종 사업은 면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도문화관광체육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된 강원FC 활성화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서 도의회는 임은주 강원FC 대표이사가 목표로 제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약속대로 연말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었다. 강원FC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여주~원주철 탄력 받는다

국토부 “2019년 착공”

여주~원주 전철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여주~원주 전철 건설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에 나서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여주~원주 전철 건설 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의 주요 숙원사업이자 국민통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월곶~판교 구간의 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성이 기준치를 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월곶~판교 구간이 타당성 미흡과 2조원대의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언제 추진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으면서 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최근 월곶~판교 구간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추진이 확정되면서 여주~원주 구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연내 추진이 가능해졌다.

여주~원주 구간은 총 연장 20.9km로 단선전철이 신설되며 총 사업비는 5001억원 규모다. 여주~원주 구간을 포함하는 동서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고속전철 운영을 통해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1시간1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강원지역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정태욱



홍천일반건설협의회 연탄 전달 홍천군일반건설협의회(회장 장관영·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1일 오전 홍천군청을 방문·노승락 군수에게 사랑의 연탄 5000장(2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2시간내 주파

‘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망 구축 본궤도

〈동서〉

국토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고속 철길로 잇는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월곶~광명~판교 간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 건설사업이 각각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두 노선 건설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동서철도망은 인천 송도역에서 수인선을 타고 월곶까지 이동한 뒤 월곶~판교선,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

주~강릉선이 차례로 연결된다.

정부는 월곶~판교선, 성남(판교)~여주선에 지하철을 운행하는 것은 물론 동서 철도망이 모두 구축되면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을 인천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송도에서 강릉까지 2시간내에 갈 수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시흥시 월곶에서부터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km, 총사업비 2조1122억원(국고)이 투입된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신안산선 일부 공용 등을 통해 2조317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낮춰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여주~원주 단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에서 원주 간 20.9km에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1억원(국고) 규모다.

월곶~판교, 여주~원주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2019년 안팎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나머지 동서철도망 가운데 성남~여주선(53.8km)은 공정률이 83.8%로 내년에 개통한다. 국내 최장 산악터널인 대관령터널이 있는 원주~강릉선(120.3km)의 공정률은 49.1%이며 2017년 말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개통한다.

김태형기자 kth@